

■ 일반논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창립의 주체였던 김탁원·길정희 부부는 왜 실제 설립 과정에서 제외되었는가?

백운기·김상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 들어가며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과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시각으로서는 이해가 어렵고 잘 설명이 안 되는 문제에서 과거 역사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복잡한 문제를 쉽게 푸는 열쇠가 되곤 한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초기 역사와 관련하여 조선여자의학강습소(朝鮮女子醫學講習所)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의 전신(前身)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고려의대 내에서는 아직 이견이 있으나, 의사학계(醫史學界)에서는 그 연계성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실제 설립과정에서 김탁원, 길정희 부부의 이름이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여자의학강습소가 여자의학전문학교의 전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여자의학강습소와 여자의학전문학교의 연계성에 이견이 생기게 된 이유인 실제 설립 과정에서 김탁원, 길정희 부부가 배제된 이유를 과거의 역사적 상황 고찰을 통하여 밝혀내어 논란이 있는 과거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2. 여자의학강습소 설립과 시련

1928년 미국 선교의사인 로제타 홀(Rosetta Hall)과 서울 동대문부인병원에 근무하고 있

* 백운기(명예교수, Temple University, Philadelphia, PA US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사업단), 김상덕(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사업단). 원고의 정리에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이현정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던 산부인과 의사 길정희(吉貞姬)가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였다. 그 설립 배경은 그 당시 사회 풍습상 여자는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여자들은 병이 걸려도 당시로서는 가장 흔한 치료진인 한의사가 전부가 남자였기 때문에 풍습상 남자에게서 치료 받는 것을 꺼려했으며, 아파도 무당과 민간요법에 의존하여 치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산부인과적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큰 장애가 되었다. 다행히 당시에 소수의 서양식 의학을 교육받은 외국 선교 여의사나 이제 막 배출된 조선인 여의사가 있었으나 그야말로 극소수였다. 따라서 보다 많은 여의사를 직접 이 땅에 길러내는 것이 당시 사회로서는 매우 시급한 중대한 문제였고, 조선여자의학강습소는 그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의사양성기관이었다.¹⁾²⁾

그러나 강습소가 설립되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즈음인 1933년 홀은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따라서 1932년 그는 김탁원(金鐸遠)과 길정희 부부에게 이 강습소를 인계하였다. 그러나 홀이 귀국 후에는 그 동안 지급되어 오던 미국선교회에서의 보조금이 끊기게 되었고, 그 동안 교사(校舍)로 쓰고 있던 시설도 선교회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³⁾ 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여의사 양성의 절실한 사회적 필요성을 실천하고자 한 김탁원과 길정희는 서울 관철동에 있던 자택(김병원)에서 자비로 학생들에게 의학 강습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노력에 따라 여의사 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에 공감한 많은 뜻있는 인사들이 무보수로 강의를 하였다. 이 강습소 운영에는 재정과 교실문제 이외에도 아직 전문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 후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하는 소위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얻어야 했으며 강습소를 계속 운영하려면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만 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은 김탁원 부부가 강습소를 인계받을 때, 총독부에서 그 강습소의 이름을 朝鮮여자의학강습소에서 京城여자의학강습소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다(1933년 7월 1일에 改名). ‘朝鮮’이라는 단어가 총독부로서는 매우 꺼끄러웠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강습소를 이어가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는 것 정도의 총독부의 요구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⁴⁾

이와 같은 재정적, 정치적 악조건 하에서 강습소가 운영되고 있던 중 김탁원과 길정희는 이 강습소를 의학전문학교로 승격시킬 계획을 세웠다. 김탁원, 길정희 부부는 1934년 재단법인 여자의학전문학교발기준비회(女子醫學專門學校發起準備會)를 결성하여 전문학교의

-
- 1)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100年誌』(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8), 366-375쪽.
 - 2) 이현정, 「자료로 살펴보는 여자의학강습소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연계성」, 김상덕, 이현정 편저, 『자료로 본 여자의학강습소』(서울: 한림원, 2003), 153-163쪽.
 - 3) 길정희, 『나의 자서전-한국여자의학교육 회고』(서울: 삼호출판사, 1977), 28-29쪽.
 - 4) 京城女子醫學講習所, 『校友會誌 (創刊號)』(京城: 京城女子醫學講習所, 1934), 2쪽. 길정희가 김상덕에게 한 증언.

승격 노력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이 준비회의 위원명부에는 박영효(朴泳孝)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당시 조선사회의 유력 인사 71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발기 취지서에 “그러나 조선의 현상을 엿본다면 우리 여자의 의학교육기관으로는 단일의 경성여자의학강습소가 그 과도기의 사명을 띠고 오육년래 분투노력해 왔을 뿐이오, 아직도 완전한 자격을 갖춘 여자의학전문학교가 없음은 1천만 여성을 위하여 아니 민족 전체의 보건과 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일기아성(一氣阿成)의 형세로 그 해결을 촉진하여서 민족적 사업의 일부단(一部段)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당시 주요 일간지의 실린 ‘女子醫專의 期成運動’이란 제목의 사설은 당시 사회에서 여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우기 위한 기성회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하는 동시에, 이것이 조선인의 힘으로 민간에서 일으킨 운동인 만큼 전 국민 모두가 같이 지원을 해야 할 의미를 가졌다고 여자의학전문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⁵⁾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강습소는 1934년에 처음으로 5명의 강습소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전원 총독부 검정시험에 합격하였다.⁶⁾

이 후 김탁원과 길정희 부부는 강습소 승격에 따르는 자금 조달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조선사회의 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할 충분한 기금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2~3년간의 노력 끝에 김탁원 부부는 김성수(金性洙)를 통하여 순천의 김종익(金鍾翊)을 소개 받게 되었다. 결과로서는 1937년 4월에 김종익은 여자의학전문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 기성회의 이사로 참여 하였으나 병환으로 갑자기 별세하면서 1937년 5월에 65만원을 경성여자의학강습소에 기부하여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 기금으로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⁷⁾

김탁원은 유지들로부터 20만원의 추가 기부를 약조 받아 여자의학전문학교의 설립은 그야 말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⁸⁾ 1937년 5월 김종익의 별세 후 유산상속자인 장남 김두수(金杜洙)가 아직 유년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박춘자(朴春子)가 유지를 받들어 재단법인 우석학원(友石學院)을 설립하고 이사장직을 섭행(攝行)하여 조선총독부에 인가를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1938년 4월 8일 드디어 설립 인가가 나왔고, 동년 5월에 제1회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재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즉, 1928년부터 1937년까지 그야 말로 물심양면 여자의학교육에 애썼고, 실제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을 추진한 주체인 김탁원, 길정희 부부의 이름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인가 신청서에서 제

5) 『조선일보』(1934. 4. 23).

6) 『조선일보』(1934. 6. 1).

7) 順天大學校 地域開發研究所, 『자료로 본 友石 金鍾翊』(순천: 正文社, 1994), 53-57쪽.

8) 『매일신보』(1937. 5. 8).

외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이후 발간한 역사 기록들 즉,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일람(1941)과 수도의과대학일람(1957년)에는 경성의학강습소의 존재와 그것이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설립에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만으로는 김탁원, 길정희 부부와 홀의 이 땅에서 여의사 양성의 노력의 대한 공정한 평가가 되지 못할뿐더러, 여의전 설립과정에서는 이들이 배제된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또한 그로 인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몰이해는 잘못된 역사적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다행이도 우리는 수년전 우연히 김탁원, 길정희 부부의 자손(사위와 딸)으로서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었다.

3. 항일운동가 金鐸遠

김탁원이 3·1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하여 징역살이를 하였다는 것은 길정희를 통하여 들은 바가 있으나, 우리는 그 정도가 어떤 것이며, 또 김탁원의 항일운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한 정보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다.

약 4년 전 미국에서 우리 막내아들 백주현(미국名은 David)이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다. 하루는 우리 3인은 인사동 근처에 가서 구경도 하고 점심도 먹기로 계획하여, 버스로 탑골공원 근방에서 내렸다. 탑골공원과 그 속에 있는 손병희(孫秉熙) 선생의 동상을 구경하면서 나(백운기)는 아들 주현에게 그 탑골공원의 유래 등등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공원 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동초등학교를 구경하였다. 이 학교는 김상덕이 졸업한 학교이다. 그 다음에는 길을 건너 약 100m 서쪽에 있는 천도교(天道敎) 교회로 향하였다. 그 이유는 김탁원이 천도교 신자였으며, 그의 장례식이 1939년 이 교회에서 거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섰을 때는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조용하였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 중년부인이 입구 근처에 있던 사무실에서 나와 서로가 인사를 나누었다.

김상덕: 내 아버지가 천도교 신자였고, 또 장례식도 이 교회에서 하였기에 미국에서 온 내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교회여인: 이 천도교교회는 삼일운동때 유명한 교회입니다. 삼일운동을 주도하셨던 손병희 선생이 여기 교주(敎主)셨으니까요.

김상덕: 아, 나의 아버지도 삼일운동에 가담하여 일년의 옥고생활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하셨습니다.

교회여인: 아, 그러세요. 그러면 서대문 형무소에 가시면 아버님의 독립운동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형무소가 박물관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들은 교회를 나와 근처에 있는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택시로 서대문형무소로 갔다. 나는 6·25 전쟁 전까지 10여년을 서울에서 살았어도 여기에 형무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었다. 형무소 내부를 구경하면서 느낀 것은 이와 같이 좁고, 창문도 없는 데에서 혹서와 엄동에 어떻게 견디었을까? 그리고 고문도 심하였을 터인데,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알면서도 항일운동을 하고서 옥고를 치렀던 우리 선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영웅이로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였다.

형무소 정문 근처에 사무소가 있었다. 사무소에 들어가 온 사유를 말하였더니,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한 후 “아! 여기 있습니다. 김탁원 선생님.” 하고 반갑게 얘기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별로 자세한 정보는 없었다. 단지 성명, 수감 년월일, 죄목 등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여직원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에 가시면 훨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접촉할 정부기관의 주소를 써 주었다. 몇 일후 김상덕이 그 기관에서 일본경찰기관이 김탁원의 항일운동에 관하여 모아 놓은 자세한 정보를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탁원 선생님은 이 항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의 훈장 수훈 대상자가 되며, 그 유해도 국립묘지에 안치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라고 통고하여 주었다.

<大韓民國 政府가 作成한 공적조서에 記錄된 金鐸遠氏의 공적 개요>

1919年 3月 서울 과고다 공원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懲役 7月(未決拘留 160日 通算)을 받았으며, 1929年 朝鮮少年總聯盟 특별위원, 新幹會 집행위원 및 회계, 1931年 朝鮮物産獎勵會 이사, 朝鮮癩病患者 研究會 상무위원, 滿洲同胞問題 研究會 조사부에서 활동함.

2007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상덕은 그의 아버지 김탁원을 대신하여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建國勳章 愛族章)을 수여받았으며,⁹⁾ 2008년 7월 4일에는 김탁원과 길정희의 유골이 대전국립묘지에 안치되었고, 정부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다.

최근에 김상덕은 The Major Achievement of Dr. Kim Taik-Won¹⁰⁾ 이란 제목의 책자를 우

9)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공훈록 제17권-2006년~2007년도 포상자-』(국가보훈처, 2007), 218-219쪽.

10) Kim Sangduk, “The Major Achievements of Dr. Kim Taik-Won”(한림원, 2009. 2. 20).

리말과 영어로 동시에 발간하였으며, 이 책에서 김탁원의 항일운동에 관한 일본경찰의 기록과 여자의학전문학교에 관한 그의 노력을 기술하였다.

4. 역사적 진실 바로 알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탁원은 조선총독부하의 일본경찰이 항시 감시하고 경계해야 할, 총독부 입장에서는 소위 “불령(不逞) 조선인(rebellious Korean)”이었다. 현재의 시각에서는 김탁원은 한국정부가 건국훈장을 수여하며 그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치할 만한 애국자이며 항일 독립운동가였다. 김탁원은 항일운동을 하던 같은 시기에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운영하였으며, 강습소를 의학전문학교로의 승격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오랜 기간 왜 경성여자의학강습소에 대해 다년간의 헌신적 공헌과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 기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탁원, 길정희 부부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에서 왜 배제되었을까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김탁원의 항일운동 경력이 이처럼 뚜렷하므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어찌면 너무나 명백하다.

일본은 조선을 1910년에 합병하였고, 1930년대는 일본의 조선통치의 최악의 독소(毒素)를 발휘하던 시기였다. 즉, 우리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불러야 하였고, 일어는 상용어가 되었으며, 매일 아침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황국신민의 서(皇國臣民의誓)”를 선서해야 하였다. 창씨개명을 하여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부르며, 젊은이들에게는 일본군에 가야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경성여자의학강습소는 미국인 선교의사 홀이 처음 설립하였다. 처음에 미국인 의사가 조선총독부에서 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김탁원과 길정희 부부가 계속 운영을 하였을 때, 그 인가를 취소할 핑계를 찾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설립하게 되는 여자의학전문학교는 달랐을 것이다. 만약 여자의학전문학교 재단에서 김탁원, 길정희 부부의 이름을 주요 인사에 포함시켜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 신청서에 넣을 때, 인가 가능성은 화약을 등에 매고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기회보다 더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강습소 시절과는 다른 인사들 이름이 인가 신청서와 여자의학전문학교 초창기 관련자 명단에 나타나며, 김탁원, 길정희 부부들의 이름은 사라져있다. 즉, 박춘자 이사장이 총독부에서 거부감이 없을 인물들을 인가 신청서에 포함시킴으로서 결과를 성공적으로 유도시켰을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김탁원씨가 강습소에서 의학전문학교로 전환 시에 제외된 것은 김탁원이

일본 학위(여기서는 박사학위를 말하는 것이다)가 없어서라든가, 혹은 전환기인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일본 학위가 없어서 제외되었다는 설은 신빙성이 없다. 그 이유는 학교 설립 신청서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또 그 때 당시 미국과 캐나다 선교 의사들 중 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박사학위(Ph.D)가 아닌 의학사(M.D) 학위만 가지고 있던 외국 의사들이었다. 그리고 “전환기 인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라는 설명은 오히려 김탁원, 길정희 부부가 여자의학전문학교에서 배제된 다음에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지, 관계가 나빠서 배제된 것은 아닐 것이다.

5. 맺음말

인간이란 과거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요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살았으며, 인생을 살면서 나름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남겨 놓고 떠났다. 이 남겨 놓고 간 것이 티끌모아 태산으로 현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문명문화를 즐기고 사는 것도 과거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인들의 생애를 이해하고 그들의 남긴 자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정당히 평가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미덕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김탁원, 길정희 부부의 조선 여성의 건강을 위한 노력, 여자의학교육에 대한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핵심어: 김탁원, 길정희, 여자의학강습소,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Abstract

Why Drs. Kim Taik-Won and Kil Chung-Hee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foundation of Keijo Women's Medical College are excluded from actual course to establish the College?

BAIK Woon-kee, KIM Sang-duk
Korea University

Chosun (a.k.a. Keijo) Women's Medical Training Institute was founded in 1928 as a joint effort between an American missionary physician named Dr. Rosetta Sherwood Hall and one of Korea's first female physicians, Dr. Kil Chung-Hee. In 1932, in anticipation of her retirement, Dr. Hall transferred full responsibility for the Institute to Dr. Kil and her husband Dr. Kim Taik-Won, a neuropsychiatrist. Unfortunately, following Dr. Hall's departure to America in 1933, funding from Dr. Hall's missionary society was discontinued. This prompted an evacuation of the Institute's lecture halls and teaching laboratories. As a result of this change in finances, the Institute's operations were transported to, and maintained exclusively at, Drs. Kim and Kil's private residence. During this interim period, the institute was sustained financially by this husband and wife team. In addition to these new found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were ongoing political hardships.

In an effort to alleviate these various difficulties, the couple decided to pursue the task of upgrading the Institute to a standard medical college. As a first step toward this goal, in 1934, the couple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a women's medical college". This undertaking (i.e., the creation of a medical college) required a large amount of funding. Therefore, the couple became actively engaged in the solicitation of funding for this purpose. In 1937, an education philanthropist named Mr. Kim Chong-Ik agreed to donate substantial fund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women's medical college. As fate would have it, however,

he unexpectedly contracted dysentery and died suddenly.

The application for the creation of a women's medical college was filed and approved in 1938 by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Thus, the first class of students in the newly created medical college was enrolled on May 1, 1938. Curiously, however, neither Dr. Kim nor Dr. Kil was named in the charter. Although one could presuppose various reasons to explain how this omission occurred, there is one undeniable aspect of history that makes clear and cogent sense in this regard.

It is now known that Dr. Kim was a leading activist for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 during the 1920's and 1930's. He was regarded as an agitator by the Japanese occupation government and viewed as an undesirable, rebellious, anti-Japanese ele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recognition of his heroic deeds during that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posthumously awarded the Ae-Jok Jan(humanitarian award) to Dr. Kim Taik-Won on August 15, 2007. On July 4, 2008, his remains were subsequently transferred, along with his professional partner and wife Dr. Kil Chung-Hee, to the Korean National Cemetery in Daejeon, South Korea.

If one considers the political climate that existed in Korea in the late 1930's under Japanese occupation, it stands to reason that any medical college application that included an anti-Japanese activist such as Kim Taik-Won would be doomed to fail. I believe that the absence of Drs. Kim Taik-Won and Kil Chung-Hee's names from the medical college charter was a rational, politically motivated act of omission.

Key words: Kim Taik-Won, Kil Chung-Hee, Women's Medical Training Institute, Keijo Women's Medical College